

라떼의 전설 :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

한 중년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끌려온다.
“너 여기에 앉아”형사가 말한다.
남자는 화난 표정으로“너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라”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앉아 마”형사가 남자의 뒤통수를 때린다.
이때 그 남자는 갑자기 수갑을 찬 손으로 신참 형사의 뺨을 힘껏 후려치며
“느그 서장 어딴어? 강서장 대꼬와아....
내 누군지 아나? 으이~! 내가 이새까, 느그 서장이랑 임마야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인마,
어저께도 같이 밥묵고, 으! 싸우나도 같이 가고, 마아,
개이 새까 마 다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개새끼이들”

이 대사는“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영화의 한 부분이다.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비리, 유착, 갑질, 양심, 정의, 청렴과 같은 낱말들 말이다. 공직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는 너무 이른시기에 위에서 열거한 단어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군복을 입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았다. 상담원이 물었다.“어느 직렬의 공무원을 준비하세요.” “네! 건축직 공무원인데요.”“아! 그래요”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상담을 마치고 문을 막 나서는데 아저씨 한 분이 큰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건축직 공무원 좋지! 권한도 크고 생기는 것도 많고”하면서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난 그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저 미소만 짓고 나왔다. 그런데 그 말뜻을 이해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꼬박 일 년 반을 공부한 끝에 시험에 합격했다. 내가 발령받은 지역은 소문난 달동네였다. 발령장을 받고 구청 건축과에 인사하러 갔다. 상견례가 끝나자 우리동을 담당하고 있는 선배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그 동네가 우리 구에서 가장 힘든 곳이야! 고생이 많을 거야! 공무원은 돈을 받으면 가장 비굴해지고, 받지 않으면 가장 당당할 수 있

는 거야!”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격려해주었다. 그 선배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고, 그 말이 근무하는 내내 나를 지켜주었다.

나의 업무는 소규모 건축신고와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불법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출장해보니 오십 대 중년 남자가 인부들과 함께 옥상에서 불법으로 주택을 증축하고 있었다. “저는 동사무소 건축 담당입니다.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아!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건축 담당이구먼! 안녕하쇼! 나 김○○사장이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내가 새로 발령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나의 경고에도 너무나 여유 있게 인사를 건네는 그가 참으로 의아했다. 내가 재차 경고하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알았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나는 철거가 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나를 뵈히 쳐다보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이윽고 나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다.

뜻밖에도 계장님이었다. 그만하면 됐으니 들어오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계장님은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잘 될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야근하고 있는데 계장님이 동사무소 아래 고깃집으로 나를 불렀다. 그 자리에는 얼마 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장에서 만난 그 사장이 있었다. “여기 앉아 이 사장님 알지 지난번 일로 미안하다고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난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상급자의 지시라 거절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 현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무허가는 반듯하게 건축되어 주택으로 이용 중이었다. 난 순간 고민했다. 다시 단속할까? 그런데 그 건축업자와 저녁 식사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내가 한없이 부끄럽고 비굴해졌다. 구청 선배님이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내가 단속하면 계장님이나 몇몇 선임자들이 나를 불러 회유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했다. 현장에서 공사업자가 현금 봉투를 내민 적도 있었고, 직원들을 통해 전달하려 했으며, 심지어 책상 서랍에 돈 봉투를 놓고 간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난 절대로 굽히지 않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철거하기도 했고, 거리에서 몸싸움도 불사했다. 어느덧 나는 동네에서 보안관으로 소문이 났다. 그들은 나를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결재를 올렸는데 계장님이 결재해주지 않았다. “계장님 결재해주세요. 급한 겁니다.”그러나 계장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이런 식으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결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나는 계장님이 왜 그런지 알고 있었다. “계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도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고 계장님도 당황했다. 다음날 계장님은 어찌할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결재를 해주었다. 나 스스로 얼마나 대견스럽고 뿌듯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는 한층 더 당당한 공무원이 되

어가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동에는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구의원의 지역구였다. 그 의원은 특하면 나를 불러 훈계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나를 불렀다. 구의원은 위반 건축물이 크지도 않고 생계형인데 봐주라고 했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난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 “의원님 지금 불법을 눈감아 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 무리 주민들의 표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이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의원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러면 곤란한데 다음에 보자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청 인사계장이 나에게 전화를 해왔다. “나 인사계장인데 당신 아직 시 보라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곧으면 부러지는 법이야 갈대처럼 유연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의원님을 많이 도와드리라고 협박성 당부를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구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구청장이 되었고, 인사계장은 곧바로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우리 동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상가 여러 채가 헐렸다. 문제는 철거한 후 남은 부분이 거의 무허가 건물이었다. 건축 주들은 건물 일부를 살리기 위해 불법으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나는 공사 중단 명령을 했다.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를 압박했다. 결국 민원이 시 본청으로 들어갔고, 감사실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다. 감사관은 공무원이 불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혹시 돈을 받고 봐준 것이 아닌지 캐물었다. 난 억울하고 분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감사관에게 말했다. 그는 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소신껏 일하고 있는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감사관은 약속대로 나를 징계하지 않았다. 다만,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고발 등 처분지시만 했을 뿐이었다. 나의 진심을 믿어주고 당당한 공무원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주신 고마운 분이다.

첫 발령 받은 초급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친 일이었다. 나의 민원 대응이 서툴고, 거칠며 세련되지 못했었지만, 일부 직원들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별나게 군다고 수군댈 때는 공직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사표를 쓸까 고민도 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냥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모두 편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기도 했다. 나도 힘들고 지칠 때 그저 편하게 살까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난 불의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른길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나는 여전히 24년째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때는 왜 청렴해야하는지

몰랐다. 다만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법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청렴은 공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당한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어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토대는 법과 제도이며 이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당당한 공무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팀원들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다. 팀원들은 놀라워하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내가 경험한 일들은 ‘라떼의 전설’이 되어야 한다. 진정 철 지난 전설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을 통해 더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가 멋지게 펼쳐지기를 마음껏 기대해 본다.

“느그 서장 어딴어! 강 서장 대꼬와아....?”

내 누군지 아나? 으이~! 내가 이 새끼, 느그 서장이랑 임마야.

밥묵고, 으! 싸우나도 같이 가고 으!

마아, 개이 새끼 마 다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때 신참 형사는 그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이 놈이 어디서 뺨치고 있어

우리 서장님이 너하고 뭘 했다고”

웃기고 있네! 이놈아 요즘 그런 공무원이 어딴어

이런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